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이 영 민*

한국의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자본에의 식민화 가능성 증대라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이 요망되며, 그러한 전략 개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다. 최근 지리학계에서 소지역, 즉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지역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연구를 위한 자료와 방법의 제한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신문은 대체로 행정구역상 군,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 단위의 소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 지역에 밀착된 작은 뉴스들이나 생활정보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형성 메카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지역신문에 관한 지리학적 관심은 우선 지역신문의 지리적 분포 현황과 그 시기별 변천을 추적,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정보원으로써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 과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중심성, 혹은 자생력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역신문, 지역정체성, 지역지리학, 생활세계, 지역공동체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생활공간, 혹은 생활세계라 불리어지는 소지역은 개인의 일상생활 경험이 구성되는 장소들의 집합이다. 동일한 물적 토대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소위 지역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특정한 생활공간 내의 독특한 경제활동과 사회집단의 특성, 혹은 특징적 역사문화경관 같은 지역요소들은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심승희, 1995).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을 매개해 주는 언론매체, 또한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의 정보를 빠르게 유포, 확산시키는 지역언론매체는 기존의 전통적 장소 독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갖지 못한 장소의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부각시켜 적극적으로 지역정체성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역언론매체가 적극적인 지역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이 배양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신문은 지역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지역정체성 형성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자본주의 시대 소지

*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전임강사

역 단위의 생활공간 연구의 필요성이 왜 증가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러한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서의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 가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 지리학계의 소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은 세계화·지방화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현실 상황과 그에 걸맞는 공간전략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증폭되어 왔다. 또한 지역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던 중등지리교과가 사회과 통합이라는 교육과정상의 변화에 의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소지역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0년대에 들어서 크게 증가된 한국 지리학계의 소지역연구 관련 논의들은 대부분 현대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활공간 연구의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이론 전개 수준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손명철, 1994; 김용창, 1995; 이재하, 1997; 이희연·최재현, 1998). 구체적인 지역을 사례로 한 경험적 연구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개발 및 세련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손명철, 1995; 이재하·이혜주, 199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연구, 특히 지역정체성의 형성·변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 보고, 연구의 기본자료로서의 지역신문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경험적 소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한국 지역신문들의 사회적 배경 및 현황과 관련된 개략적 특징들을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후속적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리학에서의 소지역연구 동향

1) 세계화(glocalization)와 일상생활공간의 재조명

현대 세계의 사회-공간 질서 재편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세방화 혹은 구방화 (glocalization)는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이미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초국적 기업과 이에 보조를 맞춘 기업화된 강대국 정부는

소위 세계화의 배후에서 그 조정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지지역의 고립성 내지는 독립성의 괴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로 국가간, 지역간 상호의존성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호의존성이란 국가간, 지역간 기능적 연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성, 그 자체의 소멸을 통한 거대지역의 획일화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사회 및 경제 질서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의 각 지역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거듭나고 있다(Robertson, 1992). 소위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의 재생은 외부적인 힘에 의한 식민화된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의 자생적 의지에 의한 내부적인 자구 노력과 정체화 작업에 의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적 동인이 무엇인 것인가에,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던져진 결과는 시-공 압착에 의한 전통적 의미의 지역성 내지는 장소성의 함몰이다. 자연환경의 상호관련성이 과거의 정태적 지역 형성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적 범주를 넘나드는 사회관계의 변화가 현재의 지역을 빠르게 변형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간 사회·경제적 교류가 더욱 증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간의 불평등, 혹은 지배-종속의 위계 관계가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재설정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손명철, 1995). 특히 초국적 자본은 과거 고립 파편성이 강하였던 세계의 국지적 장소들에 영향을 미쳐 그 특화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이를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내어 주고 있다. 따라서 각 장소들의 기능적 통합성이 강화된다는 세계화의 의미는, 또한 지역의 특화기능을 개발, 발전시킨다는 지방화의 의미와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최재현, 1996).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맹활약은 분명 기능적 특화에 실패한 국지지역에 대해서는 그 일상생활공간 식민화의 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의 일상공간 및 일상생활의 식민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방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국지적인 삶의 공간과 그것을 터전으로 삼

고 있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착근되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지리학적 지역연구에 있어서 소지역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삶의 질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주인 소지역이다. 지역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개인의 일상적 경험의 수준이나 집단 정체화의 기제는 그 추상성이 증대된다. 초국적 자본이라는 외부적 압력에의 대응 전략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부적 생활환경 개선 방안 모두 작은 스케일의 지역 및 소지역 공동체 차원의 운동에 의해 그 구체성이 극명화된다. 지역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사람냄새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소홀하게 다루는 지역연구는 인간을 로봇의 수준으로 격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과 그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세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상생활적, 공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을 이룬다.

2) 지역스케일의 문제

지리학적 지역연구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따라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는 종합과학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자부하여 왔다. 모든 지역은, 그 스케일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서로간에 차이성이 노출되는데, 이러한 차이성의 배경에는 지역의 다양한 현상, 내지는 지역 구성 요소들이 지역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통일적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깔려있다(권정화, 1997). 이러한 지역적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소위 신지역지리학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그 차이성, 혹은 독특성의 형성과정과 변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즉 끊임없이 변해가는 역동적인 실체로서의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신지역지리학은 전통지역지리학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역지리학이건 신지역지리학이건, 각 지역을 독특하게 만들어 내는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연관성은 여전히 유효한 지리학적 지역연구의 탐구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구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는 지역지리학 발전의 초창기부터 매우 중요하면서 또한 매우 난해한 문제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난해성은 아마도 지역 개념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지역은 Hartshorne이 이미 지적하였던 것처럼, 일종의 정신적 산물로서의 개념적 편의체로서, 현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지적인 연구틀이라는 견해에 대해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Smith, 1996). 아마도 이러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 지리학적 지역연구의 대상 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주장이나 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통지역지리학의 거두라 할 수 있는 Hartshorne은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 없이 지리학적 지역연구의 방법론 논의를 통하여, 지리학은 지역차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따라서 그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전체로서의 지역이라고 보았다. 사실 어떤 스케일에서건 지역은 전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지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해상도 높게 부각되고, 따라서 안락의자 지리학(*armchair geography*)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전체성의 강조와 부분들의 명확한 도출 의지는 지리학적 지역연구가 중규모 이상의 지역범위를 그 연구 대상으로 선호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¹⁾

신지역지리에서도 한 지역의 형성에는 내부의 지리적 요소들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동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연계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역 범주가 지니는 탄력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즉 소지역의 특성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보다 넓은 지역에서 작동하는 동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써 딱히 지역의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닌 듯싶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역의 내용구성과 지역간 포섭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제법 이루어져 이를 통해 소지역연구도 지리학적 지역연구의 일부로써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지역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지리학에서의 지역 연구는 대체로 인간 자체보다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집단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연구지역의 범위가 확장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communitiy)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인류학이나 사회학적 지역연구의 소지역연구 범위와 뚜렷이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3) 생활세계와 로컬리티 연구

물론 지리학에서도 하나의 커뮤니티와 그 근린 지역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소지역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인간주의 지리학이 현상학적 방법론에 따라 생활세계(life world), 혹은 당연시 여겨지는 세계(taken-for-granted world) 등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작은 규모의 장소에 대한 연구가 제법 많이 진행되고 있다(Seammon, 1979; Buttimer, 1976; Ley 1974, 1977). 인간주의 지리학은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의 추상적인 공간물신론적 관점에 반기를 들고, 보다 인간 중심으로 장소를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즉 생활세계는 인간의 범주 바깥에 물가치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주관적 의도 등이 반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의미체라 할 수 있다.

생활세계로서의 지역이란 그냥 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주관성의 상호교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따라서 지역에 투여되는 상호주관적 의미, 그 의미들의 융합과 분열, 경합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특정 장소에 대한 거주민들의 심리적 밀착감, 즉 장소감(sense of place)이나 장소애(topophilia) 등이 어떻게 지역정체성으로 구체화되는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Eyles and Smith, 1988). 이처럼 인간주의 지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세계에서 주관적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문제는 연구지역의 범위를 축소시켜야만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람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의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세계에 직접 뛰어들어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을 시도하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 필요한데, 이 참여관찰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연구자 자신이 특정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실제로 되어서 그 집단의 시각에 먼저 익숙해지고, 그런 시각을 통해서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장소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외부관찰자로서의 탈주관적 기술이 아니라, 내부의 주관적 세계에 뛰어들어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와 구조화이론 등 다양한 철학적 사고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지역지리학도 소규모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신지역지리학으로 묶어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정치한 이론적 논의들은, 대체로 지역 형성에 있어서의 사회와 공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존재론적 정당성을 갖는 개념으로서의 지역을 거부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ayer, 1989). 지역은 내부적 구성 요소들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변화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일관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지역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그 내부적 특성의 형성, 변용은 더 큰 스케일의 지역구성요소와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근거한 다양한 신지역지리 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Gilbert, 1988). 첫째는 지역을 자본주의적 과정의 국지적 반응체로 보는 관점이다. 자본의 축적 및 순환의 과정이 특정 장소에서 작용할 때 지역적 다양성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새롭게 창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을 사회적 동질감이 확인되는, 즉 정체성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특정 장소에서 문화가 생산 및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또한 장소의 개발이나 상징화 작업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적 실천들에도 주목한다. 셋째는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 의거하여 지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보는 관점이다. 즉 지역이 갖는

이러한 매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관계는 생산 및 재생산을 계속하게 된다고 본다.

위의 세 관점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의 지역 관점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구조가 순환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각각의 창출, 변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상호관련성은 특정한 공간적 맥락(contexts) 속에서 벌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공간적 맥락이 바로 지역이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핵심은 인간 행위와 사회구조의 순환적 반영성의 맥락에 대한 이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규모 지역의 locality, 즉 커뮤니티 구성원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의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분석이 요망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과정의 반응체로서의 지역 관점도, 비록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정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주목해야 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석 요소들은 결국 작은 규모의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체성 관련 연구도 지역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객관적인 일반화가 필요하므로, 그 질적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작은 스케일의 지역 범위 내에서 명확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

소지역 단위의 지역정체성은 전술하였듯이, 인간주의 지리학과 그 영향을 받은 신지역지리학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다. 정체성이란 나 자신 혹은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써, 존재의 근거에 대한 관념적 체계화라고 볼 수 있다. 자신과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은 곧 타자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으로까지도 연결된다. 그러한 구별짓기를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확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소속감과 동일체 의식을 자원화하기도 한다.²⁾ 일종의 구별짓기의 속성이 정체성인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따라서 각 지역들을 구별지을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단지 차이에 대한 인식이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지역정체성은 한때 부

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적 근대화의 과정 중에 뚜렷하게 대두되었던 중앙 대 지방의 지역구도 상황은 지역성의 부각을 국가단위의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고루한 것, 혹은 지방색이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현장의 구절처럼 민족 전체의 시각만이 있을 뿐,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시각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다.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본 것은 하향식 개발의 중심이 될 중앙에 강력한 힘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그 결과 지방은 단지 중앙에 부속되어 있을 뿐 빈약한 자생력의 지역으로 활기를 잃게 되었다(이영민, 1998). 국가의 발전은 마치 지방 내지는 지역의 발전과는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전체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방의 특색들은 전근대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장되어 버렸다. 최근에 각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비등하고 있는 지역정체성의 확보 운동은 위와 같은 서울 중심의 중앙 대 지방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대 지방으로 표현되는 선진과 낙후의 심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구 노력인 것이며, 이는 지역간 위계적 체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 즉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바라보고자 하는 지역중심화 작업인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지역구성원들의 정체의식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공간의 가시적인 모습을 특징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그런데 지역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간적 차별화, 내지는 경관적 독특성만을 주목의 대상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다른 공간물신론(spatial fetishism)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적 전통이나 지리적 특징들과 이에 바탕한 전통산업 및 경관은 물론 지역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완전하고도 충분한 요소는 아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역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의 인적 구성의 이질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전통에의 안주만으로는 지역정체성의 확보가 난망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전통성은 현대지역사회에 있어서 실제 거주민들 중 다수의 삶과는 유리된

채 화석화된 상징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전통적 요소들의 역할과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현대적 요소들을 창출, 개발하는 것이다.³⁾ 어차피 지역구성원들의 삶은 현재에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며, 그 삶이 윤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충실한다면, 시대에 걸맞는 비전있는 요소의 개발을 통한 전위적인 정체성의 함양도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지역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전통성의 복원과 현대성의 개발이라는 이중적 숙제의 해결은, 어디에 중점을 두던 간에,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망이 원활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정체성의 형성은 공동체적 가치와 지식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에 기반한 가치와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구성원들은 외래적 영향력에서의 표류를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갖게 된다(이영민, 1998).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구성원간 의사소통적 대화의 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몇몇 지역엘리트들이나 지역토박이들의 애향심만으로는 높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이질성을 갈무리해 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활동이 권력 지향적 성향으로 오염되거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탈정치적이며, 탈지연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객관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같은 지역언론매체는, 탈정치성과 탈지연성만 확보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매개체이다. 대체로 언론이 갖는 기능은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 만족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능과 그 대가로서의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정보 등에 대한 알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의 사건이나 그에 대한 정보는 실질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있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언론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능 수행의 봉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영에 필요한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4. 지역신문의 성격과 기능

지역신문은 대체로 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일컬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상 군 단위, 중소도시 단위, 대도시의 구 단위의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다.⁴⁾ 이는 중앙의 일간지와 지방신문(지방 대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과 비교해 볼 때, 소지역, 즉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작은 뉴스들이나 생활정보 등 지역생활에 밀착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사 내용상의 차이 이외에도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점포의 광고에 의존하여 대부분 무가치(無價紙)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는 점, 발행주기에 있어서도 주간 내지는 격주간 단위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띤다. 또한 경제적 거래를 위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정보와 일부 공공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활정보지도 소지역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는 지역신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기사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다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은 아직도 연구자들의 편익에 의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소위 지방신문은 광역시와 도 단위의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배포되고 있는, 지방 대도시에 거점을 둔 일간신문을 말하며, 지역범위와 발행주기 등에 있어서 지역신문과 뚜렷이 구별된다(김세철, 1999). 사실 우리 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지역구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매우 공고하게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철저한 중앙 중심적 언론 구도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⁵⁾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지방신문들도 이러한 중앙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지면의 절반 이상을 중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채워왔다.

지역신문이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은 198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지방 대도시에 본사를 둔 지방신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그 상대적 비중의 차이

가 있긴 하지만, 지방의 뉴스들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은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창간 러시를 이루는 지역신문은 그 배경을 이루는 지역을 중심에 놓고, 지역현안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앙-지방 구도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 지향적, 혹은 중앙 종속적 의식에서 지역을 바라보고자 하는 지방신문의 특성과 크게 구별된다.

지역신문이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지역정치라는 측면에서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일반시민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제가 정립되기 이전 한국의 지역사회는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지는 자치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채, 단지 지방엘리트들이 중앙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측면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감지된다. 지역의 문제는 어찌되었건 중앙의 문제와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종속적 시각이 강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제의 출범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극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관계망의 설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매개해 주는 것이 지역신문이 가진 핵심 역할인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자신들이 생활공간 자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지역정보의 광범위한 전달이라는 목적도 지역신문에 의해 상당 부분 달성성이 가능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지역신문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신문은 대부분 무가치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고, 따라서 필요한 재정은 광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광고시장이 협소하므로, 지역신문사의 재정상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

우가 허다하다(권혁남, 1994).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극복의 활로를 지역광고의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모색한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많은 개인경영의 서비스업 관련 소규모 업종들을 모아 광고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지역사업가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신문사의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3차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 자본의 지역내 순환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지역신문의 역할은 자못 크다. 국경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는 각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직접적인 대외접촉 및 경쟁력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잠재력을 수면 위로 노출시키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작업은 지역신문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지역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신문의 역할은 심대하다.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곧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현대사회의 중앙 중심적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의해 추동되어 빠른 속도로 공간을 잠식하고, 물질소성(placeness)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국 각 지역에 침투한 대중문화는 개인주의적 의식을 넓게 전파하여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자본을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자본성, 대중성, 상품성으로 무장한 중앙의 문화가 일종의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을 잠식해 갈 때에 지역주민들은 그 유혹의 손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백선기, 1999). 물론 대중문화가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순기능의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지역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지역경제에의 기여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문화의 정착이라는 과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지역문화는 전통성에 바탕하여 구성될 수도 있고 현대성으로부터 새롭게 창출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지역신문은 그러한 지역문화 요소를 개발하

고 지역주민들에게 유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역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문화를 향유하는 가운데서 운택한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5. 한국의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위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지역신문은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욕구가 점차 비등해지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급격히 증가된다. 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의 창간이 러시를 이루었고,⁶⁾ 또한 이전까지 정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보와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신문의 창간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1991년의 지방의회 선거와 96년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여론의 추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이고, 주민들 자신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상생활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크게 고조되어 공론화의 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창업 자본이 그리 크지 않으며, 소수의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지역신문은 전국을 걸쳐 우후죽순 격으로 창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⁷⁾

지역신문은 소자본의 소규모 경영이기 때문에, 그 창간과 휴간, 폐간, 복간 등의 부침이 심한 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의 창간이 확산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역신문이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는 1987년 이전에도,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몇 개의 지역신문이 발행된 적이 있었다. 1957년부터 1967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원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던 高麗時報, 1960년 3월부터 약 1년여간 전남 해남군에서 발행되었던 南鄉時報, 1983년 2월 서울 강남 아파트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던 리빙뉴스 등이 이에 속한다(김영호, 1999). 하지만 1987년 언론기본법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신문도 이 때를 즈음하여 본격적으로 창간되기 시작한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0

년 6월에는 233개의 지역신문이 공보처에 등록되었으며, 1996년에는 582개가 등록되었다(김영일, 1996). 물론 실제로 창간되지 않은 채 등록만 했던 경우도 많고,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나, 어쨌든 지역신문의 양적인 증가와 관심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증가세는 IMF 경제 위기에 따라 둔화, 정체되었으나, IMF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리라 추정된다.

성공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한국의 지역신문은 철저하게 지역에 밀착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 주변의 소식들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실감성도 높고, 자기 자신의 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이웃의 정보와 뉴스를 서로서로 접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표 1>은 인천 연수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연수신문 최근호(1999년 11월 10일자)의 기사를 지면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지역신문의 기사는 대부분 지역 관련 기사와 생활정보 관련 기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자본 및 소인력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의 경영상태는 일반적으로 그리 양호하지는 못하다. 발행 부수는 1회 발행시 평균 14,800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적은 발행 부수가 갖는 경제규모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클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규모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발행 부수는 각각 22,800부, 14,600부, 8,200부이다. 지역의 규모, 즉 인구의 규모가 클수록 발행 부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언론연구원, 1996) 그렇다고 이러한 수적인 많고 적음이 경영상태의 부실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독자들,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반응이 얼마나 높은가이며, 이는 한마디로 지역공동체 의식, 내지는 향토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신문의 경영 상태는 수입과 지출의 대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96년 4월 현재,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신문사의 월수입은 1,300만원이며, 월지출은 1,400만원으로 대체로 손익분기점에 미치

표 1. 지역신문 기사 제목

지면	기 사 제 목	분 류
1면	* “구의회, 최실장에게 공식사와 받아내” * “구의회,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행정력 낭비 초래”	정치·행정 정치·행정
2면	* “구청장 판공비 공개해야 한다” * “연수구 민원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연수구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휴일 단속반 편성” * “푸드뱅크사업단, 겨울을 준비한다” * “인천시, 사이버분향소 운영한다”	정치·행정 정치·행정 정치·행정 사회 사회
3면	* “작은 사랑 실천하는 후원자 대회 열린다” * “연수구 사람: 동요 속에 영그는 사랑과 우정” * “마을소식”	사회 사회 사회
4면	* “문화계 소식” * “중장년 여성실업자 갈 데가 없다” * “바다와 더불어 “여성을 이야기 한” 거리음악제“ * “여성계 Hot News”	문화 사회(여성) 문화(여성) 여성
5면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 “교육계 소식” * “우리가 월드컵 주역: 옥련초등학교 축구부 창단”	교육(기획기사) 교육 교육
6면	* “인천을 배웁시다(51) - 백령도의 역사(1) * “인천을 배웁시다 - 어린이 향토교양퀴즈 * “연수구 신청사 완공, 14일 이전 완료한다”	문화 문화 행정
7면	* “지하철 건설본부 마무리 공사 엉망” * “합박마을 지하주차장, 주차료 놓고 주민, 주차관리공단 마찰” * “시민게시판” * “연수구 99 나무가꾸기 운동 전개”	사회 사회 정보안내 행정
8면	* 업소탐방 * 퍼즐	정보안내 문화

출처 : 인천 연수신문 196호 (1999년 11월 10일자)

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수입과 지출을 지역의 규모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대도시는 수입 1,080만원에 지출 1,360만원, 중도시는 수입 1,760만원에 지출 1,810만원, 소도시는 수입 930만원에 지출 1,100만원을 보이고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6). 이를 통해서 발행 대상 지역의 규모, 즉 인구 규모에 따라 경영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중규모 도시에 자리잡은 지역신문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경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역신문의 경영 상태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지역광고의 안정적 수주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신문경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근접한 이웃 업체에 대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지역내 소비활동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생활공간 내의 경제적 관계망이 확고하게 구축되기 때문이다.

열악한 경영 환경은 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떨어뜨려 지역신문 고유의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영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광고의 수주에 더 노력을 기울

이게 되고, 때로는 경영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 지향적 토착세력과 유착하여 시급한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의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치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다. 즉, 지역신문 발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 토박이이거나 오랜 기간 그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므로, 지역 내에 고착된 혈연, 학연 등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역신문들은 탈정치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한 속박에서 탈피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의 함양에 결국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및 과제

한국의 지역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지역관계, 즉 지방의 종속성 문제이다. 저돌적인 근대화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 있어 중앙의 막강한 권력은 단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의 자생력을 함몰시켜 왔다. 국가 혹은 민족 전체의 시각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마치 국가의 발전과 지방 내지는 지역의 발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국가의 총량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지방 내지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80년대 중반이후로 본격화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물결은 국가정부라는 방패막을 제거하면서 각 국지지역으로 직접 침투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공간의 식민화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에의 종속 및 세계자본에의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또한 고조되어 갔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90년대에 들어서서 그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시각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생력의 배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중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작업은 나와 우리를 정확히 아는 일, 즉 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로부터 식민화를 극복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도출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신문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은 지역문제 해결의 양대 주체인 관료집단과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때로는 그 자체가 지역시민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철저히 지역내 밀착된 정보와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그 동안 정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일상생활 및 생활공간의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이러한 지역신문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신문은 지리학에서의 소지역 내지는 지역정체성 연구를 위한 귀중한 연구자료임에 틀림없다. 지역신문의 기사 자체가 지역연구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지역내의 주체들의 관계망 분석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지리학적 연구과제로써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적 스케일에서 지역신문의 지리적 분포 현황과 그 시기별 변천을 추적,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많은 지역신문들이 소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간과 휴간, 폐간 등 그 부침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전담하여 통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기별 변천과 관련된 정돈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장애가 된다. 물론 공보처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등록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이며, 단기간의 부침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한국언론연구원이나 한국지역신문협회 등도 연구자의 구미에 딱맞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지역의 지역신문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이다. 이는 그야말로 지역연구를 위한 정보원으로써 지역신문을 활

註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취재원을 밝히고 그 발굴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신문의 지역밀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행 주체의 정체성 의식과 의도를 밝힐 수도 있다. 결국 기사의 작성은 발행 주체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왜곡된 지역 의식, 혹은 지역 정체성 형성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참여도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이질성이 높아가는 현대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과연 통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토박이 집단과 외래인 집단을 구별하여 그 반응을 조사해 봄으로써 '우리'라는 의식 형성의 메카니즘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정보 제공자로서의 지역신문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의 생활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소위 장소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규명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역신문이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지역신문 경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광고기사의 분석과 주요 광고주인 소규모 비즈니스 경영인에 대한 조사 및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3차 산업 중심의 지역경제네트워크를 가시화시켜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경제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변용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제 이외에도 다양한 과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위와 같은 주제의 연구들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신문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일 수도 있고, 다른 지리학적 연구를 위한 수단 내지는 자료일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접근되든지 간에,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이에 관련된 많은 지리학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1) 금세기 초, Vidal de la Blache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지역연구에서는, 오히려 소지역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주장하였던 pays 개념은 전산업사회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장기간의 교류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양식(genres de vie)이 관찰되는 등질 지역으로써 일종의 소규모 자연지역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소지역의 범위가 도보로 야외조사가 가능하고, 연구자료도 직접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라고 보았다(Claval, 1998, 138-160). 그러나 이 개념은 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부적 속성의 파악에만 집착하였을 뿐, 더 넓은 스케일에서의 사회적 프로세스와의 연계성을 소홀히 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계경제가 유지되었던 전산업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라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손명철, 1994).
- 2) 이러한 자원화의 극명한 예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는 국가의 하위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일 것이다. 미국 대도시 내에서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하위집단들이 자기들의 종족성(ethnicity)을 자원화(resourceification), 혹은 상품화(commodification)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Zhou and Portes, 1995; Lee, 1990). 자기들 집단 내에서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자 제도적 완전성(institute completeness)을 추구하는 것 등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하위집단의 종족성 자원화는 다문화주의 사회에 있어서 훌륭한 적용 전략이고, 또한 전체사회의 발전에도 다양성의 제고 및 자원 풀(resource pool)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혈연, 학연, 지연 지향적 사회구조도 이러한 정체성의 자원화라 볼 수 있기는 하나,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 다른 집단과 전체집단에 분명하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3) 예를 들어 부산의 국제영화제는 이제 전국을 아우르는 독특한 지역문화 행사로써 부산의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부분적으로나마 보탬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의 전통에 눈을 돌리는 후위적 입장의 정체화 작업과 아울러 이러한 현대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전위적 입장의 정체화 작업도 그 의미가 무척 깊다. 수도권 위성도시와 같이 서울의 문제를 떠맡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전통성이 취약한 지역들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 4) 미국에서는 Community Paper, Town Paper, 혹은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Grass-root Paper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작은 규모의 생활공간, 내지는 지역일상생활 관련 기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小新聞', 혹은 '미니컴'이라고 통칭된다. 미니컴이라는 용어는 매스컴의 광범위성에 대칭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영호·강준만, 1995, 195).

- 5) 우리나라의 중앙 중심적 사고방식은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어 왔다. 80년대 말 이후 지방자치의 요구가 점증되면서 지역신문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지방일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 지향적 성향이 빈도 높게 간파된다. 반면에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배포망을 전국화하면서 그 영향력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지면의 일부를 지역색선화하여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지역뉴스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중앙지를 표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신문은 U.S.A. Today 정도이고, 그 외 명망 높은 신문들은 - 예를 들어 New York Times나 Chicago Tribune 등 - 애당초 지방을 배경으로 시작된 신문들이고, 여전히 각 지방의 뉴스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구독률이라는 수요자의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지방에 본사를 둔 일간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6) 87년 초 일간지의 숫자는 28개에 불과했으나, IMF 직전인 1996년 2월 현재 총 113개의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어 불과 10년만에 4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일간지의 경우, 87년 초 10개에 불과했으나, 96년 2월에는 69개로 약 7배가 증가하여 눈길을 끈다(김승수, 1999, 120-121). 1987년 이전까지의 언론 기본법은 지방을 근거지로 한 신문을 1개 도에 하나씩 둔다고 못박고 있다. 같은 해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따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자유롭게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7) 1996년 한국언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161개 지역신문의 평균 설립 자본금은 1억 3백만원에 불과하다. 신문사당 종사자수는 평균 9.6명이고, 이 중 기자 수는 5.1명에 불과하여 그 영세성을 엿볼 수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6).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광고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지역신문 경영의 성공여부가 지역의 광고시장, 즉 소규모 비즈니스 분야와의 밀착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8) 그러나 한국의 지역신문은,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미시적 경제활동의 정보나 생활광고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등등의 생활정보지에 의해 지역광고시장을 선점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적 거래나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시장은 중앙일간지의 손이 닿지 않는 일종의 틈새시장 내지는 적소(niche)로써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영마인드 집단은 한발 앞서 지역의 광고시장을 장악하였다. 배포체계에 있어서도, 생활정보지의 경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가판대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어 지역신문으로서의 경쟁이 버겁다.

文 獻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혁남, 1994,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한국언론학보, 31호
- 김세철, 1999,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1-34.
- 김승수, 1999, **지역 매체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과제,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17-155.
- 김영일, 1996, **언론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지방자치제도와 매체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신문**, 189-212.
- 김영호, 1999, **지방화시대의 주간지역신문, 지역사회와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5-221.
- 김영호·강준만, 1995,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출판.
- 김용창, 1995, **생활공간의 관점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도서출판 대운, 51-98.
- 백선기, 1999,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지역사회와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319-345.
- 손명철, 1994, **서론: 지역지리연구의 새로운 장을 모색하며,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새로운 지역지리논의를위하여**, 명보문화사, 11-33.
-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경기도 이천 지방노동시장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심승희, 1995, **역사경관과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에 관한 연구-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 1998, **문화환경과 지역발전-인천지역을 사**

- 레로, *지리학연구*, 32(4), 121-134.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4-134.
- 이재하·이혜주, 1999, 구미의 지역성 변화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77-90.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최재현, 1996, 세계화와 지방화: 그 지리적 의미의 연속성, *지리교육논집*, 36, 126-133.
- 한국언론연구원, 1996, *한국의 지역신문 - 제2회 지역신문 실태조사·내용분석*,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조사96-1.
- Agnew, J., 1993, Representing Space: Space, Scale, and Culture in Social Science, In Duncan J. and Ley D.(ed.),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251-271.
- Buttimer, A., 1976, Grasping the Dynamism of the Lifeworld,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 277-292.
- Claval, P.(translated by I. Thompson), 1998, *An Introduction to Regional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 Eyles, J. and Smith, D. M.(eds.), 1988, *Qualitative Methods in Human Geography*, Polity Press.
-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28.
- Johnston, R. J., 1991, *A Question of Place: Exploring the Practice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 Ley, D., 1977, Social Geography and the Taken-for-granted World, *Transactions, IBG*, 2, 498-512.
- Lee, D. O., 1990, Commodification of Ethnicity: The Sociospatial Reproduction of Immigrant Entrepreneurs, *Urban Affairs Quarterly*, 28(2), 258-275.
- Ley, D., 1974, *The Black Inner City as Frontier Outpost*,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Nagel, J., 1994, Constructing Ethnicity: Creating and Recreating Ethnic Identity and Culture, *Social Problems*, 41(1), 152-176.
- Robertson, R.,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Sayer, A., 1989,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problems of narrative," *Environment and Planning(D)*, 7, 120-138.
- Seamon, D., 1979,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ovement, Rest, and Encounter*, St. Martin's Press.
- Smith, J., 1996, Ramifications of Region and Senses of Place, In Earle, C., et. al., *Concepts in Human Geography*, Rowman & Littlefield, 189-212.
- Zhou, M. and Portes, A., 1995, *Chinatown: The Socioeconomic Potential of an Urban Enclave*, Temple Univ. Press.

Regional Identity and Community Paper: A Search for Subject and Method of Geographical Research

Youngmin Lee*

Summary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each region in Korea has experienced deep subordination to the center of Seoul and the increase of colonization possibility by world capital.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above all, th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cusing on daily life and life spac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i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dentity on life space. It is because of the reason that life space, or small-scale region has drawn wide attention in the research of geography in recent years. Especially, humanistic geography and new regional geography have developed the concerning theory and methodology, and kept going on the research of small-scale regions.

Generally speaking, there have been quite large amount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small-scale region in recent years in the field of geography. Empirical researches focusing on a particular small-scale region, however, have been rarely made. It seems related to the deficiency of data materials and the obscurity of research framework of small-scale regional geography. A community paper must be very helpful for the geographic research on small-scale region. As community paper is published based on county

(‘gun’), small or mid-size city(‘si’), or district of large city(‘gu’), it deals with small news and daily life information closely attached to the region. Accordingly, it functions as a medium of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It is also a valuable source material for the valid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for the analysis of identity-shaping mechanism.

The geographic interests in community paper, first of all, should be taken shape by the work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he periodic change of publication situation of community papers in Korea. Another research subject on community paper is the exa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y analyzing the news and the advertisements. The news in community paper must be a valuable data source of regional studies in geography. Also, the regional identification process of community people through the community paper could be and should be explored, and how the regional centrality, or self-generation based on the identity is achieved will be an important subject.

Key words : community paper, regional identity, regional geography, life-world, regional community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